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양상

하 경 숙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계약제 교수)

- I. 머리말
- II.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의미
- III.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특성
- IV.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
- V. 맺음말

<국문 요약>

자연은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일련의 의지의 과정이다. 그 중에서 해녀는 예로부터 자연속에서 살아가는 강한 힘을 지닌 여성집단이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나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바다와 싸우며 바다를 작업의 터전으로 삼아 다양한 해산물을 채취한다는 점과 특수한 장비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20m까지 들어가는 초인간적인 힘을 보여준다.

이들이 지닌 의식은 무엇보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오늘날의 에코페미니즘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여성주의(feminism)는 남성 위주의 권력투쟁과 전쟁의 양상이 아니라 여성성과 바로 연결되는 에콜로지(ecology)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그래서 '환경여성주의'로 번역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이 새로운 가치체계로 주목된다. 에코페미니즘은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재생산의 주인공인 여성을 중심에 두는 주의이다.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 만물의 근거이다. 남자의 생산주의는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에코페미니즘은 한때 여성주의가 강조되었던 만큼 오늘날 절실하다.

<해녀 노젓는 소리>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바다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속성을 그들의 모성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순환과 상생이라는 의미에서 자연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지어 부르는 노래 <해녀 노젓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치유과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녀 노젓는 소리>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이어지는 장르임과 아울러 그 때 그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공통적이면서 개별적인 매우 가치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에코페미니즘, 해녀, 모성, 희생, 여성주의.

I. 머리말

자연은 인간이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일련(一連)의 의지의 과정이다. 그 중에서 해녀(海女)는 예로부터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강한 힘을 지닌 여성의 집단이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나약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험난한 바다와 싸우며 바다를 작업의 터전으로 삼아 다양한 해산물을 획득한다는 점과 특수한 장비가 없이 상황에 따라서 20m까지 들어가는 초인간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위대한 존재로 볼 수 있다.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뱃사공과 함께 돛배를 타고 본토로 출가(出稼)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뱃물질하러 오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¹⁾ 이들의 노래는 오늘날의 에코페미니즘과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오늘날 여성주의(feminism)는 남성 위주의 권력투쟁과 전쟁의 양상이 아니라 여성성과 바로 연결되는 에콜로지(ecology)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환경(環境)으로 전환되었다. 그래서 ‘환경여성주의’로 번역되는 에코페미니즘이 새로운 가치체계로 주목된다. 에코페미니즘은 보다 근본적인 생명의 재생산의 핵심인 여성을 중심에 두는 사고이다. 여성은 단순히 여성이 아니라 만물(萬物)의 근원(根源)이다. 이는 남성들이 가져온 생산주의에 대한 여러 면에서의 한계를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유행의 사조가 아니라 오늘날 절실한 가치이다. 생태학이란 용어에서 에코(eco)어원이 “가정” 또는 “가계”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나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미니즘은 다양한 사상들이 혼합되어 있고, 그것이 장점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자연 지배와 여성 억압을 근대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남성중심적, 인간중심적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문화적/급진적/영성적 에코페미니즘과 사회적/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으로 나뉘면서 각각의 문제 의식을 지니고 있다.

1)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41쪽.

<해녀 노 젓는 소리>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들의 강인한 생활력과 의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17세기 후반에는 해녀들이 전복 채취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처럼 해녀들은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삶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에게 바다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매우 넓다. 바다라는 공간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모성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순환과 상생이라는 가치로 자연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지어 부르는 노래 <해녀 노 젓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특질과 성찰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시공을 초월하면서 이어지는 장르임과 아울러 그 때 그 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공통적이면서 개별적인 매우 가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에코페미니즘에서 다루는 몇몇 주장과 요소를 요약하여 소개하고,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자연과 여성의 의미를 통해 에코페미니즘의 입장을 확인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II. <해녀 노 젓는 소리>와 에코페미니즘의 의미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은 생태학(ecology)과 여성주의(feminism)의 합성어로, 1974년 프랑스 작가 프랑수아즈 드본느(Francoise d'Eaubonne)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드본느는 『페미니즘 또는 파멸』이라는 저서에서 여성과 자연이 억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며 에코페미니즘을 출발시킨다. 그리고 생산의 토대로 작용하면서도 문명의 중심에서 소외되어 온 자연과 여성의 공통점을 발견함으로써 생태주의와 페미니즘 논의를 통합적으로 진전시킨다.²⁾ 본격적으로 시작된 에코페미니즘도 두가지 경향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급진적, 문화적, 영성적 에코페미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 사회주의적 에코페미니즘

2) 로즈마리 퍼트남,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2000, 25쪽.

이다.³⁾ 다시 말해 여성과 자연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논리를 심화시킨다는 견해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로 볼 수 있다.⁴⁾

여성의 몸이 근본적으로 남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에코페미니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성은 정복과 지배를 특성으로 삼으면서 도덕적 측면에서 정의와 권리를 내세우며 인간관계를 계급적, 기계적 원자론적으로 파악한다. 반면 여성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며 양육하는 등 주로 생식력과 깊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리적인 모태(母胎)지향성을 특징으로 삼으며 도덕적 측면에서 보살핌이나 돌봄의 윤리를 여성성으로 내세우게 된다. 인간관계 또한 그물이나 거미줄처럼 보면서 사물을 종합적이고 전일적으로 파악한다고 주장한다.⁵⁾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여성의 억압과 자연의 위기가 동일한 억압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며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에코페미니즘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의 위기나 여성의 억압은 모두 남성 중심 서구중심의 가치관으로 비롯된다고 본다.⁶⁾

<해녀 노 젓는 소리>가 형성된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본토에 전파되어 본격적으로 가창(歌唱)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부터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적어도 15세기 말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안에는 에코페미니즘적인 사유(思惟)와 관심(觀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녀 노 젓는 소리>의 서정적 사설 유형은 ‘신세한탄·이별·연모·인생무상·가족걱정·기타(전설)’등을 주제로 하면서 다른 유형의 민요와 시가 작품의 사설과 교섭되거나, 개인적 창자의 능

3) 박이문, 「녹색의 윤리」, 『녹색평론』 15호, 녹색평론사 1994, 41~51쪽.

4) 김임미, 「에코페미니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5쪽.

5) 이지엽, 「에코페미니즘의 시학을 위하여: 90년대 여성시인 작품 분석」, 『시조시학』, 고요아침, 2007, 235~236쪽.

6)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19쪽.

력에 따라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⁷⁾ 노 젓는 노동과 물질 작업 실태와 부합되는 게 대부분으로, 사설 내용이 노 젓는 일을 독려하고 지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⁸⁾ 해녀들은 점차 그 기술이 발전하고 인원이 늘어감에 따라 도내에만 머물리 않고 도외로 속속 진출하기 시작했다.⁹⁾

에코페미니즘의 시각으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검토하는 것은 생태주의적·여성주의적 관점을 포괄하면서 그 속에 내장하고 있는 충만한 생명의 정신에 접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감수성, 대안 등이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여성이 생계 노동을 통한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류, 자녀의 양육과 보살핌 노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이해에 인식론적 특권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생물학적(生物學的) 본질주의로 간단히 치부하는 태도를 벗어날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이며, 여기에 여성의 경험과 사회·역사적 현실을 간과하는 담론적인 주장으로부터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또한 기존의 이분법적(二分法的) 세계를 극복하여 자연을 통한 화합(和合)과 공존(共存)의 세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이 지니는 가치를 알 수 있다. 에코페미니즘은 사상이라기 보다는 형성중인 경향으로서 이론의 치밀성 보다는 분화성, 다양성, 과정성 등을 전개의 특성으로 한다. 따라서 에코페미니즘의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본질주의, 친자연주의, 사회적 성체계의 극복으로 구분 할 수 있다.¹¹⁾

7)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현지 김영돈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81~134쪽.

8)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6집, 고전한문학 연구학회, 2009

9) 강대원, 『해녀연구』, 한진문화사, 1973, 43쪽.

10) 김임미, 「에코페미니즘과 지혜의 언어」, 『여성이론』 1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227쪽.

11)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춤 연구」, 경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 친화적(親和的) 이미지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불균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의 생태적 균형과 회복, 인간사회에서의 계급과 성에 따른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에코페미니즘의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생명체에 생명력을 갖게 하고 인간과 융화된 자연의 본질성에 의한 이미지를 순수의 추구와 함께 생성되는 생명력으로 표현하는 것이다.¹²⁾ 다시 말해 에코페미니즘은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함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간사회에서의 이원론과 자연에서의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이 자연의 생태위기 해결 뿐 아니라 인류 생존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과 자연의 생태를 동일하게 보고 그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성은 모든 것이 파괴되기 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추구된다고 할 수 있다.

Ⅲ.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적 특성

‘해녀노래’를 현지에서는 ‘해녀 뱃노래’, ‘해녀질 소리’, ‘해녀질 흐는 소리’, ‘잠녀 소리’, ‘잠수질 하는 소리’ 등으로 부르는데, ‘잠녀’는 ‘잠녀(潛女)’, ‘잠수’는 ‘잠수(潛嫂)’로 불리는 것은 노동요(勞動謠) 같은 본원적인 노래는 고정된 노래명(謠名)이 있을 수 없고, 노래하는 상황을 요약하는 말로서 조사자와 제보자 사이에 뜻이 소통되는 표현이 곧 민요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¹³⁾ <해녀노젓는소리>는 해녀들이 ‘뱃물질’하러 오갈 때 돛배의 ‘젓걸이노’를 저으며 주로 부른다. 간혹 ‘굿물질’ 나갈 때 테왁 짚고 헤엄치면서 <해녀 노 젓는 소리>를 부르기도 하는데, 사설(辭說)이 같고 가락이 조금 빠른 편이다.¹⁴⁾ 서해안 지역은 동해안 및 남해안에

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3쪽.

12) 김은희, 위의 논문, 56쪽.

13)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민속원, 2002, 72쪽.

비해 노젓는소리가 가장 많이 조사된 지역이다. 서해안 지역의 노젓는 소리는 평안북도 3곡, 평안남도 1곡, 평양시 1곡, 남포시 2곡, 황해도 1곡, 인천시 13곡, 경기도 2곡, 충청남도 11곡, 전라북도 7곡으로 모두 41곡이 분포되었다.¹⁵⁾ 해녀 노젓는 소리는 일반민요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를젓는다’는 특정노동의 형태로 인하여 기능적으로는 폐쇄성을 보이지만, 담당계층인 해녀들이 여성이라는 측면의 정서적 보편성 혹은 열린 모습을 보여준다.¹⁶⁾ 해녀들이 바다라는 공간속에서 노동을 통해 삶을 이어가는 동안 그 안에는 에코페미니즘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저절로 익히고 완성하고 있다.

이에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남녀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을 차이의 존중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여성과 자연의 동질성이라 할 수 있는 ‘억압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야 가능해진다.¹⁷⁾ 해녀들의 삶은 바다라는 자연공간과 이원화할 수 없다.

흔히 에코페미니즘에서는 ‘남성=문명=자본=소비’, ‘여성=자연=명=생산’의 의미로 성차(性差)를 파악한다.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명이 이룩한 서구의 물질문명이나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자연에 가까운 여성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¹⁸⁾ 에코페미니즘은 근대 가부장제에서 도외시되었던 여성적 관점과 능력을 강조하고 실천함으로써 근대가 지닌 많은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설

14) 이성훈, 「민요 가창자의 시간과 공간 의식」, 『온지논총』 17집, 온지학회, 2007, 388쪽.

15) 문봉석, 「노 젓는 소리의 지역별 차이와 의미 -음구조를 중심으로」, 『한국 민요학』 35집, 한국민요학회, 2012, 40쪽.

16) 조규익,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 구성 및 전승의 원리, 『탐라문화』 3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89쪽.

17) 김미영,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글쓰기와 다문화시대의 논리」, 『동아시아문화연구』 35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3, 248쪽

18)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사, 2008, 468쪽.

명 할 만하다. 여기에는 남성지배 여성종속의 근원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논리와 같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에서의 자연은 여성과의 동일시이자 하나의 커다란 생명력을 가진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단순히 인간에게 언제나 이롭고 감싸는 존재만이 아닌, 인간의 선택가치를 넘어선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화하는 격동적인 에너지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생명력을 가진 하나의 유기적인 힘이다.¹⁹⁾ 또한 자아(自我)와 타자(他者)를 구분하고 독립성과 독자성, 분열과 분리를 강조했던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의 여성다운 시각이 중요하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을 닮아 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발전논리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동안 폄하되었던 상호 의존적이고 비폭력적인 여성들의 공존 윤리를 재건설하자는 것이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생각이다.²⁰⁾ 이런 점에 비추어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적 요소를 점검하고자 한다.

1. 자연과 생명의 열망

에코페미니즘에서의 모성 회귀(回歸)적 표현은 모태를 동경하는 감성을 표현하는 이미지로 모성과 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한다. 자연 안에는 무한한 생명성과 독립성이 잠재되어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이오, 바다에 대하여서까지 욕심을 부리게 되것슬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다가도 해물 구하려 나가는 사람들은 날로 자젓고 날로 만힛슬것이니 그 때문에 여튼갓에 잇는 해물은 하로 이틀 사람의 손에 다 거치엿슬것시오, 쏘 감사잇는 생물은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김흔 바다로 슬금슬금 뺨소이를 첫슬것입니다. 그리되면서부터 사람들은 다리만 짓고 들어가서 잡듭것을 바리를 벗고 드러 깊히 들어가야 잡게 되엿고 나중에는 온복을 다 벗고 들어가야 잡도록 되

19) 전해정,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세계」, 『애니메이션연구』 4권 1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08, 95쪽.

20) 미라이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150~168쪽.

있고 맨 나중에는 키가 넘는 김흔 물속까지 들어가야 참말 욕심나는 해물을 만히 엿게 될 것을 알었습니다. 이와가티 먼 바다에까지 나갈 수 있는 해엄치는 것과 물속으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는 잠수의 필요를 느끼고 그런 일을하여 성공한 것이 오늘날 우리 「잠네」의 유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위를 헤엄쳐나가는 것과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아직도 미비한 것이 만습니다.²¹⁾

모두가 먹기 위한 값진 노동을 하고 순수하게 자연에서 난 것을 먹는, 이렇게 자연과 유기적으로 상생하는 그런 공동체를 에코페미니즘에서는 자급적 관점에서 이상적인 모델로 본다.²²⁾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해녀들은 에코페미니즘에서 언급한 자연과 더불어 상생(相生)하는 소규모 공동체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해녀들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직업(職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업에 대해 비하된 시선을 갖지 않는다. 해녀들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밖에 없기에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직업이며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자급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²³⁾ 해산물이 많은 때에는 물가에서 옷을 약간 걸거나 하면서 채취했지만, 해산물이 깊은 바다에 숨고부터는 옷을 점차 벗으며 점점 깊은 데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하(卑下)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순수한 의미가 담겨있다.

해산(海産)에는 단지 생복(生鰯), 오적어(烏賊魚), 분곽(粉藿), 옥두어(玉頭魚) 등 수종이 있고, 이외에도 이름 모를 수종의 물고기가 있을 뿐으로 다른 어물(魚物)은 없다. 그 중에서도 천(賤)한 것은 미역을 캐는 여자를 잠녀(潛女)라고 한다. 그들은 2월 이후부터 5월 이전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들어가서 미역을 채취한다.

21) 『매일신보』 1931. 9. 12(토), “「해녀생활 보고」 - 최학송 제 2신”, 강명혜 최초 발굴

22) 전해정, 앞의 논문, 96쪽.

23) 강명혜, 「〈해녀 노 짓는 소리〉의 통시적·공시적 고찰 1 - 서부 경남 지역의 본토 출가 해녀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12집, 온지학회, 2005, 121쪽.

그 미역을 캐낼 때에는 소위 잠녀가 빨가벗은 알몸으로 해정(海汀)을 편만(遍滿)하며, 낫을 갖고 바다에 떠다니며 바다 밑에 있는 미역을 캐어 이를 끌어올리는데, 남녀가 상잡(相雜)하고 있으나 이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생복을 잡을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하는 것이다.²⁴⁾

17세기 전반까지만 하여도 전복을 따는 것은 잠녀들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할 몫은 아니었다. “잠녀(潛女)는 미역을 캐는 여자”이면서 부수적으로 “생복을 잡는 역”도 담당하였다.²⁵⁾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자 포작의 수는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그들이 맡던 전복 채취의 역은 잠녀들이 주로 맡게 되었다.²⁶⁾ 여기에서 자연은 모든 생명체의 창조, 재생, 지탱의 순환 구조 속에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힘이 된다. 해녀들에게 바다라는 공간은 생명을 창조하는 공간이고 그들을 유지하게 하는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근원이 되는 곳이다.

따라서 여성적 원리의 화신이자 창조적 표현으로서의 자연은 창조성(創造性), 활동성(活動性), 생산성(生産性), 형태 및 형상의 다양성(多樣性), 인간을 포함하는 모든 존재 사이의 연결성과 상호관련성, 인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사이의 연속성(連續性), 생명의 신성성(神聖性)을 그 특징으로 한다.²⁷⁾ 무엇보다 에코페미니즘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요 균형”²⁸⁾인데 해녀 노젓는 소리에는 이러한 사안들이 잘 형상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조화는 모든 생명성의 공존이라고 볼 수 있다.

너른바당 앞을내연

24) 이견 저·김태능 역, 「제주풍토기」, 『탐라문헌집(耽羅文獻集)』,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198쪽.

25) 이성훈, 「해녀 노젓는 소리의 형성과 본토전파」, 『우리문학연구』 24집, 우리문학회, 2008, 57쪽.

26) 박찬식, 「제주 해녀의 역사적 고찰」, 『역사민속학』 19호, 한국역사민속학회, 2004, 146쪽.

27)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솔출판사, 1998, 38~42쪽.

28) 김육동, 『문화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410쪽.

| | |
|---------|---------------------|
| 흔 질 두 질 | 들어가난 |
| 저승질이 | 왓닥갓닥 ²⁹⁾ |
| 너를 바당 | 앞을 재연 |
| 흔 질 두 질 | 들어가난 |
| 홍합대합 | 비쪽비쪽 |
| 미역귀가 | 너홀너홀 |
| 미역에만 | 정신 들연 |
| 미역만 | 헛단 보난 |
| 숨 막히는 중 | 몰람고나 ³⁰⁾ |

위의 노래는 해녀들이 창망(滄茫)하고 드넓은 바다에 나가 해산물을 채집하기 위해 무자맥질하는데 목숨을 건 투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이처럼 위험이 도사린 바닷 속에 뛰어 들어 목숨을 걸고 잠수작업을 하는 해녀들의 삶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그려진다. 해녀들의 작업은 바다라는 공간이 주는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바다와 공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준다. 해녀들의 노래에는 생명을 생산, 재생산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인간에게 자부심과 위엄을 부여할 수 있는 지식이 될 것이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오래된 생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생명은 다양성에서 비롯되고, 그러한 생명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은 여성의 노동과 지식의 역할이자 임무라고 할 수 있다.³¹⁾ 이 집단에서는 남자의 생산주의(生産主義)보다는 여성의 노동과 지식이 여러 면에서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 |
|----------|-----------|
| 이여도사나 어허 | 이여도사나 |
| 브름 불영 | 절 갠 날 싯느냐 |
| 브름 부난 | 파도가 씨다 |

29)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 일조각, 1997, 214쪽, 노래 832번.

30) 김영돈, 위의 책, 215쪽.

31) 김임미, 앞의 논문, 238쪽.

| | |
|---------|-----------------------|
| 어서 젓영 | 어서 나가자 |
| 즈낙이나 | 붉은 때 흐영 |
| 어린 애기 | 젓을 주라 |
| 이여도사나 | 이여도사나 ³²⁾ |
| 이여 사나 흥 | 이여도 사나 흥 |
| 앞브름은 | 고작글이 불어 오곡 |
| 뒷브름은 | 없어나 지네 |
| 이여 사나 흥 | 이여도 사나 ³³⁾ |

파도가 잔잔하거나 노를 천천히 저을 때는 ‘이여도사나, 이여사나, 이여싸’와 같은 가락 있는 후렴을 부른다. 구연 현장인 바다가 안정된 상황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애정 문제 같은 생활 감정을 노래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다.³⁴⁾ 바람이 거슬러 불고 파도가 세고 거친 상황에서는 자칫 해난 사고의 두려움을 갖기 마련인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잔 날이 있느냐고 반문(反問)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파도가 세므로 빨리 노를 저어야 갈 수 있다고 자문자답함으로써 공포심을 떨쳐버리고 노 젓는 데 혼신의 힘을 쏟으려는 의지가 보인다.³⁵⁾ 바다라는 공간은 변화무쌍(變化無雙)하므로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공간이다. 홀연 광풍(狂風)이 불기도 하고 파도가 거세지기도 하는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여 노를 저어가야 하는 이들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지닌 삶에 대한 굳은 의지와 노동(勞動)의 가치는 노래 속에서 형상화되어 보여주고 있다. ‘물질하러 나갈 때’는 해산물이 풍부한 어장에 도달하기를 소망하거나 기원하는 사설, 어장에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려고 노 젓는 일을 독촉하거나 권유하는

32) 이성훈 채록, 제주도 성산읍 온평리, 1986. 7. 29, 양송백 (여, 1905년생)

33) 진성기, 『제주도민요』 2집, 중앙미술사프린트부, 1958, 69쪽.

34)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교섭 양상」, 『한국민요학』 22집, 한국민요학회, 2008, 199~249쪽.

35)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327쪽.

사실이 있으며, ‘물질하고 돌아올 때’의 사실은 자신과 남편을 걱정하는 사실, 해산물 채취의 어려움이나 물질 기량이 모자람을 토로하는 사실 등이 있다.³⁶⁾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생명에 대한 강한 주체의식과 동시에 인간과 동화된 자연의 본질에 대해 한층 접근하게 한다.

2. 모성과 희생의 소산

인간은 유독 모성(母性)에 대한 강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모성은 인간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고, 지혜와 해답을 주면서 위로를 해주는 강한 존재로 인식된다. 현대인이 겪는 대립과 대결의 구도에서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지배적인 새로운 세기의 비전으로 부드러운 모성적 정서가 손색이 없음을 인지시켜 준다.³⁷⁾ 또한 모성은 에코페미니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돌봄 또는 보살핌으로 드러나는 타자윤리는 모성성을 근간으로 하는데, 에코페미니즘에서 특히 중시하는 ‘돌봄’의 특성은 실천의 주체에 있다.³⁸⁾

| | |
|---------|-------|
| 이여사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 쌀물때랑 | 주어에가고 |
| 들물때랑 | 앞개에가게 |
| 이여사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
| 어덜가민 | 괴기하크니 |
| 이눔이배야 | 대바당가게 |
| 이여사이여사나 | 이여도사다 |

36) 이성훈, 앞의 논문, 143쪽.

37) 구명숙,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인식-『따뜻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 51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104쪽.

38) 김미영, 앞의 논문, 250쪽.

| | |
|---------|----------------------|
| 우리집 | 큰딸애기 |
| 나기다리당 | 다늬으키여 |
| 이여사이여사나 | 이여도사나 ³⁹⁾ |
| 엄마 엄마 | 허는 아기 |
| 저 산천에 | 묻히나 놓고 허 |
| 한라산을 | 등에다 지고 |
| 연락선을 | 질을 삼아 하 |
| 거제도를 | 멀 허래 오란 |
| 받는 것은 | 구속이고 |
| 지는 것은 | 눈물이로다 |
| 이여사 하 | |
| 요 금전을 | 벌어다 |
| 우는 애기 | 밥을 주나 하 |
| 병든 낭군 | 약을 주나 하 |
| 혼차 벌엉 | 혼차 먹엉 |
| 요 금전이 | 웬말이더냐 하 |
| 이여싸 하 | 이여싸 ⁴⁰⁾ |

위의 인용문은 이기순이 가창한 <해녀 노 짓는 소리>인데, 제주도를 떠나 거제도로 이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연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 노래는 가창자(歌唱者)가 제주도에서 겪었던 일들은 거제도(巨濟島)에서 살면서 물질할 때 화자의 시점으로 부르고 있다. 이 노래에는 가창자의 비극적인 사실들이 나타나 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슬픔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자문자탄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도 실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굳건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는 존재의 의미를 잃은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삶을 살기 보다는 오직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안타까운 여

39) 임동권, 『한국민요집』1, 집문당, 1974, 51쪽.

40)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 제 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488~489쪽.

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는 노래이다. 모성은 어머니와 아내라는 무거운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사막과 같은 거친 삶을 극복해가는 여성에게는 근원적인 힘을 주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 | |
|-------|---------------------|
| 악마가 뜬 | 요 금전을 |
| 벌어서도 | 이여사나 |
| 논을사나 | 밭을 사나 |
| 얻은 자식 | 대학출신 |
| 사각모자 | 씩을라고 |
| 나가 요리 | 한단 말고 이여사나 |
| 이여사나 | 이여사나 ⁴¹⁾ |

위의 인용문은 가창자 윤미자의 <해녀 노 젓는 소리>이다. 이 노래에서 화자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번 금전으로 논을 사겠냐, 밭을 사겠냐고 자문하면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물질작업의 고생을 참아낸다는 것이다.⁴²⁾ 자신의 고통보다는 사각모로 상징하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教育熱)은 현재의 고통을 참아내는 이유임과 동시에 지극한 모성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해녀의 일상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이처럼 ‘바다’는 우주의 자궁이며, 여성의 몸은 생명의 모태이며 세계의 근원이자 우주의 생성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모성은 강한 생명의 열망이며 생의 근원으로 작용한다.

모든 남자는 배를 저으며 취사와 어린이 보는 일을 도맡아 하고 여자는 테왁을 들고 감연히 바다에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해녀는 하루한 두 번 씩 물때를 맞춰 멀리 난바다에까지 나가 40분 내지 1시간 동안 일한다. 모두가 썰물을 타서 난바다에 나가 밀물 때 돌아옴으로 활동시

41) 이성훈, 「서부경남지역 <해녀 노 젓는 소리> 조사」, 『승실어문』 제21집, 승실어문학회, 2005, 394쪽.

42) 이성훈, 「민요 가창자의 시간과 공간 의식」, 『온지논총』 제17집, 온지학회, 2007, 396쪽.

간은 그 천만의 간만의 어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일에서 돌아오면 곧 또 농사에 종사한다.⁴³⁾ 여기에서 여성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하고 ‘바다’라는 자연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동시에 노동을 통해 몸소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출산과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모성을 살펴볼 수 없는 문제이다. 모성은 임신과 출산, 양육과 같은 생물학적 요소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투영되는 이데올로기라는 사회적 요소와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이다.

IV. <해녀 노젓는 소리>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의 가치

고대(古代)에는 자연을 정복하거나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여신(女神)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자연에 대한 경외심(敬畏心)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성과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논하는 것을 단순히 구시대적이며 원론적(原論的)인 담론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과 자연은 단순히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관련을 갖고 의지하는 힘의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에코페미니즘을 여성과 자연은 단순히 생명을 기르고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재현한다는 사실에 대해 비판적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녀 노 젓는 소리>에 내재된 여성이 가진 자연성, 모성, 관능에 주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해녀집단이 가진 특수성은 자연을 보호하고 공존(共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해녀집단의 현실은 실로 열악하다. 타 분야와 비교하여 직업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수산업 말단 생산자로서 정치경제적·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거듭되어 그 지위란 회의적인 수밖에 없다.⁴⁴⁾

43) 마에다겐지, 「제주도에 대해」, 『문교(文教)의 조선』, 홍성목 역, 『「제주도」의 옛 기록』, 제주시우당도서관, 1997, 13~14쪽.

44) 안미정, 「해항도시의 이주자 : 부산시 해녀 커뮤니티의 존재양상」,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녀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통해 자연 속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데, 이는 에코페미니즘이 강조하는 이상적인 삶 과일 치한다. 그러나 해녀들이 하는 노동의 강도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을 주는 이상적인 공간이기는 하지만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공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해녀 노 젓는 소리>는 개인적인 체험과 감정에 따라서, 혹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컨텍스트적(context)인 상황에 따라서 그때 그 순간에 부합되게 재창조되는 열린 텍스트의 기능을 하고 있다.⁴⁵⁾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니네야 배는 잘도 간다
 우리야 배는 잘도 못 간다
 생복고동 좋은딜로 가자
 앞 발르고 뒤 발라 주소’
 좋은 디, 생복고동 하연 딜로 가서 ‘돈 벌게 헤어주소’
 영 헤그네 불르명 영 막 네 젓영가명도 젓곡, 그 네착을 영 행 여 영 젓주게.
 풍선 잇잖아.

저, 영 육지 가 보민 영 뎀마가추룩 현기 영 너부작한 배 헤영 그런 배 타그
 네 물질을 해 낫지. 야 -바당으로 몰아오는 절이 무섭다.⁴⁶⁾

앞의 인용문은 미역의 채취량이 소라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고 무게 또한 무거워서 제주도에서 물질 나갈 때 돛배를 이용한 것은 주로 마을 앞바다로 미역을 채취할 때라는 사실을 알려 준다.⁴⁷⁾

해녀들이 수산업 종사자라는 면에서 이들의 경제적 활동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의 관련을 점치게 하지만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남성의 지위를 넘지 못한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⁴⁸⁾

『경계』 89권, 부산경남사학회, 2013, 226쪽.

45) 강명혜, 앞의 논문, 137쪽.

46) 『국문학보』 16집,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4, 147~148쪽.

47) 이성훈, 앞의 논문, 71쪽.

그러나 이들은 바다를 통해서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이처럼 해녀집단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 등을 스스로 터득했다. 이는 현명한 모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깊은 바다와 더불어 소통(疏通)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에코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자연과 소통하는 영성적靈性 능력의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성적 원리(Femine Principle)로서 에코페미니즘의 대안적 세계와 관련이 있는 영성이다. 이 영성은 생명에 대한 확신같은 것이지만 들봄의 모성에 한정되기 보다는 이를 포함한 생명력, 다양성, 역동성, 순환성으로서 상보적이고 상생적인 협력관계로 개방된다.⁴⁹⁾

우리가 겪어나가고 있는 뒤틀린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미래가치를 주는 것이냐, 암담한 우리에게 어떤 새 좌표를 열어주고 있는냐의 문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상황에서 다소 원시적으로 보이는 해녀들의 삶에서 충분히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여성성(女性性)의 요소로 ‘관능(官能)’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성적인 매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잉태(孕胎)하고 기를만한 생명력(生命力)’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으며, 이는 <해녀 노 젓는 소리>에도 내재되어 있다. 자연을 통해 생명성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생명을 양육하고 삶을 영위한다. 다시말해 에코페미니즘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삼라만상과 교류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이며, 이때의 관계적 자아는 인간 스스로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닌 관계적 그물망 안에서 그 대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⁵⁰⁾

48) 조혜정, 「제주도 해녀사회 연구: 성별분업에 근거한 남녀평등에 관하여」,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2, 143~168쪽.

49) 문순홍, 「생태여성론, 그 닫힘과 열림의 이론사」,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375~376쪽.

50)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영미문학페미니즘』제9권 1호,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53쪽.

육지레 갈 때민 즈쌀, 보리쌀을 흔 두어 말씩 쌍 가질 안 흐느냐, 그된 강 쓸을 못 사난, 처음으로 거제도 미날구미엔 흔디 가신디. 남즈가 셋썸 올르곡 흔 열다섯 명이 풍선으로 브름술술 불민 듯 들곡 브름 웃인 때민 넬 다섯 채 놓앙네 젓영 가곡. 센 마루 넘어갈 땐 때 안 올라가까민 기신 내영 젓쟁 흐른 말판 지명 어기야차 디야 해가민 막 올라가느네. 밤이도 젓곡 낮이도 젓이멍 일뤄나 걸려시네⁵¹⁾

이처럼 바람이 불면 뜻을 달고 항해를 했으나, 바람이 멎거나 파도가 높아 센 마루를 넘어갈 때는 힘껏 노를 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센 마루를 넘어갈 때, 힘을 내어 노를 저으려고 하면 정판을 찢으며 <해녀 노 젓는 소리>를 구연하는 것이다.⁵²⁾ 이를 통해 해녀들은 자연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기 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에게 언제나 우호적이고, 무기력하고, 착취당하는 대상이 아니며 인간의 선악(善惡)적 가치판단을 넘어서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왕성하게 살아가는 힘이다. 에코페미니즘의 성립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자연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맞이한 현실적 상황의 위기를 자세히 보여준다. 근대의 발전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온 것처럼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의 불균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해녀라는 여성이 지닌 삶에 대한 경험과 사회·문화적으로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텍스트이다. 해녀들에게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역량(力量)이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 지식, 재생산 능력, 여성성을 ‘바다’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그들의 삶의 치유과 성찰의 가능성까지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성이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파괴적 개발이 아닌 자급적 대

51) 이성훈, 앞의 책, 160쪽.

52) 이성훈, 앞의 논문, 70쪽.

안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녀들이 하는 작업들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완충지대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⁵³⁾

지금의 사회현실은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고 독립성과 독자성, 분열과 분리만을 강조하는 이기적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이 지닌 자애롭고 포용력이 있는 여성의 시선을 중요한 대안으로 삼을 수 있다. 이에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기존의 사회가 지닌 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그동안 등한시되었던 상호 의존적이고 비폭력적인 여성들의 공존 윤리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해녀 노 젓는 소리>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이 뱃사공과 함께 돛배를 타고 본토로 출가(出稼)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뱃물질하러 오갈 때, 부르는 노래로, 이들이 노래속구현하고 있는 노동의 의미, 모성애, 자연과의 공존은 오늘날의 에코페미니즘과 연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과 문화, 나와 타자(他者)사이의 경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이 지닌 의미와 인간 세계와 자연과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정립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최근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그 어느 것도 확정된 사실은 없다. 또한 그 범주도 점차 확장되어 인간(人間)과 자연(自然)과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확대되어 현대의 수많은 물질적·정신적 문제들을 극복할 대안(代案)으로 보여지고 있다.⁵⁴⁾ 에코페미니즘은 그 개념이 복잡하고 다양한 이론들로 분화되어 있지만 결국 궁극적

53) 박미경, 「신동엽 시의 에코페미니즘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50권, 현대문학연구학회, 2013, 314쪽.

54) 김은희, 위의 논문, 99쪽

목표는 여성성과 자연의 회복(回復)을 통하여 조화로운 새로운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데 핵심을 두고 있다. 에코페미니즘의 성립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을 파악하고, 자연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은 우리가 맞이한 현실적 상황의 위기를 자세히 보여준다. 근대의 발전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애써 외면해온 것처럼 인간은 더 이상 자연과의 불균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해녀라는 여성이 지닌 삶에 대한 경험과 사회·문화적으로 처한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있는 텍스트이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여성의 노동, 지식, 재생산 능력, 여성성을 ‘바다’라는 공간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는 그들의 삶이 지닌 의미가 인간의 치유와 성찰의 가능성까지도 확대하여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 또한 자연을 통해 우호(友好)적이고, 따뜻한 보호를 느끼는 한편, 바다라는 공간을 통해 함께 공존(共存)하고 생존(生存)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전달한다. 또한 자연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그것에 대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간과 자연의 균형 관계가 파괴된 시점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생산 방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 오염 등 자연 파괴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본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다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에코페미니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본질적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생명에 대한 강한 열정이 분명히 재현되는 동시에 인간과 자연의 본질에 대해 세심하게 설명한다. 무엇보다 <해녀 노 젓는 소리>에는 바다라는 자연적 공간을 활용하여 해녀들이 지닌 모성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순환(循環)과 상생(相生)이라는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무한한 생명력의 노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 접수일 : 2014.12.10 / 심사개시일 : 2015.01.03 / 게재확정일 : 2015.01.24

<참고 문헌>

<단행본>

『매일신보』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민속원, 2002.

김영돈, 『제주도 민요연구 상』, 일조각, 1997, 214쪽, 노래 832번.

이성훈, 『해녀의 삶과 그 노래』, 민속원, 2005.

임동권, 『한국민요집』1, 집문당, 1974.

미라이 미스·반다나 시바, 손덕수·이난아 역, 『에코페미니즘』, 창작과 비평사, 2000.

로즈마리 퍼트남, 이소영 옮김, 『페미니즘 사상』, 한신문화사, 2000.

박이문, 「녹색의 윤리」, 『녹색평론』 15호, 녹색평론사 1994.

반다나 시바, 『살아남기』, 솔출판사, 1998.

한국여성문학학회,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소명출판사, 2008.

<논문>

강명혜, 「<해녀 노 젓는 소리>의 통시적·공시적 고찰 1 - 서부 경남 지역의 분토 출가 해녀를 중심으로」, 『온지논총』 12집, 온지학회, 2005.

김상진, 「생태주의 관점에서 본 기녀시조」,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김임미, 「에코페미니즘 논리와 문학적 상상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김임미, 「에코페미니즘과 지혜의 언어」, 『여성이론』 10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04.

김은희, 「에코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본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춤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미영, 「신경숙의 장편소설에 나타난 에코페미니즘 글쓰기와 다문화시대의 논리」, 『동아시아문화연구』 35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 문화연구소, 2013.

구명숙,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인식-『따뜻한 가족』을

-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 제 51권,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 변성구, 「해녀노래의 사설 유형 분석」, 현지 김영돈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편, 『제주문화연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3.
- 이지엽, 「에코페미니즘의 시학을 위하여: 90년대 여성시인 작품 분석」, 『시조시학』, 고요아침, 2007.
- 이성훈, 「민요 가창자의 시간과 공간 의식」, 『온지논총』 17집, 온지학회, 2007.
- 이성훈, 「민요 제보자의 생애와 사설」, 『백록어문』 2집,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회, 1987.
- 이성훈, 「강원도 속초시 해녀 <노 젓는 노래>와 생애력 조사」, 『승실어문』 제 19집, 승실어문학회, 2003.
- 이성훈,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의 현장론적 분류와 유형」, 『고전과 해석』 6집, 고전한문학연구학회, 2009.
- 조규익, 「'해녀 노 젓는 소리' 사설 구성 및 전승의 원리」, 『탐라문화』 31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 전혜정, 「에코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세계」, 『애니메이션연구』 4권 1호, 한국애니메이션학회, 2008.
- 마에다겐지, 「제주도에 대해」, 『문교(文教)의 조선』, 홍성목 역, 『「제주도」의 옛 기록』, 제주 시우당도서관, 1997.
- 문순홍, 「생태여성론, 그 달힘과 열림의 이론사」,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Abstract

*Ecofeminism Aspect Presented in <Women Divers' Rowing Song> / Kyung-Sook Ha
(Sunmoon University)*

Nature is a series of process of will that wishes to constantly live. Among them, women divers are female group with strong power that has lived in the nature from the past. Even though they are physically weak women, they show superhuman power that collects various sea foods under the sea, fighting against tough sea and dives up to 20 meters without special devices.

Their perception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ecofeminism of today that is presented in <women divers' rowing song> among them, and today's ecofeminism awakens the importance of ecology directly connected to femininity, not man-oriented power dispute and war aspect. Therefore, ecofeminism that is translated with 'Environmental Feminism' takes center stage as a new value system. Ecofeminism is the philosophy focusing on females who are main characters of reproduction of more fundamental life. Females are the basis of universe, not women. Male's productivism exposed its limitation in many aspects. Ecofeminism is very essential today because rationalism has been once emphasized.

<Women's rowing sound> explicitly shows women's strong vitality and sense in the background of sea. Traits contained in the space of sea can b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women's maternal instinct, and a natural space may be considered in the sense of circulation and coexistence. In addition, healing and introspection of their life can be identified through <women's rowing sound> made by them. In this sense, <women's rowing sound> is a genre connected beyond the time and space, and a common and individual, valuable work that is newly created from time to time.

Key words: Ecofeminism, Women diver, maternal instinct, Sacrifice, Feminism.